

접속조사의 공존과 비공존의 현상

박희남*

目次

1. 들어가기
 2. 접속조사의 표현형식
 3. 모달리티성에 의한 접속조사 분류
 4. 공존현상
 5. 비공존현상
 6. 결어
-

1. 들어가기

일본어사의 중세부터는 사회적인 발달과 복잡화에 따라 언어표현도 다양화가 요구되었다. 접속조사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와 용법의 접속조사가 출현하게 되었으며, 접속조사는 시대의 변천과 함께, 사용에 있어서 시대별로 발달과 쇠퇴를 하며, 바뀌어 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접속조사 사이의 공존현상과 치환현상은 의미적인 공통점과 함께 문법적인 규칙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현대 일본어에도 나타나고 있다. 즉, 현대 일본어에서 조건의 확정용법에 사용되는 접속조사 「ので」와 「から」는 똑같이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존의 관계를 보이는 「ので」와 「から」는 의미와 용법에 있어서 절대적인 일치점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¹⁾

* 대전대학교 부교수 일본어학

1) 『現代語の助詞・助動詞-用法と實例-』(1951: 175, 36)에서는 「ので」와 「か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ので」: 原因・理由・根據 등을 나타낸다. 前件과 後件이, 原因・結果, 또는 理由・歸結의 關係에 있는 것이, 表現者에 의하지 않더라도 명백한 사실을 나타내는 事態. 따라서 條件의 獨立性은 「から」보다 약하다.

「から」: 表現者가 前件과 後件의 原因・理由로서 措定하여 결합한 표현. 「ので」에 비하여, 條件의 獨立性이 강하다.

본고는 시대별 접속조사의 치환현상에 있어서, 의미적으로 동등한 위치의 접속조사가 공존이 가능한 경우와, 공존이 불가능하여 치환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같은 공존과 비공존의 이유에 대하여 현대어의 「から」와 「ので」의 차이점과 비교하고, 일련의 규칙성을 검토하며, 접속조사별로 모달리티와의 상관성을 조사하는 것에 의하여, 접속조사가 이끄는 종속절과 모달리티와의 관련성이 시대에 따른 접속조사의 치환현상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가? 하는 것을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접속조사의 치환현상과 모달리티성과의 관련성을 고찰하여 일본어 접속조사의 변화에 모달리티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점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이와 같은 조사에는 16세기에서 18세기에 해당하는 일본의 中·近世語의 구어자료인 『天草平家物語』(1593年), 『大藏虎明本狂言集』(1642年), 『捷解新語』(原刊本 1676年, 改修本 1748年, 重刊改修本 1781年) 등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近代語로 바뀌어가는 특징의 하나가 새로운 구어 표현의 확립과정²⁾으로, 특히 접속조사의 변화현상은 일본의 中世語에서 近代語로의 이행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구어자료를 통하여 접속조사의 변화에 대한, 당시의 사정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2. 접속조사의 표현형식

2.1 『天草平家物語』

『天草平家物語』에 나타나는 용언을 비롯한 술어부에 나타나는 제 요소를 통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접속조사가 이끄는 술어부에 나타나는 표현형식을 살펴보았다. <표1>에서와 같이 존경에 조동사 「る, らる」, 단정을 나타내는 표현에 「ちゃ, なれ」, 과거·완료에 「た, たり」, 희망 표현에 「たい」, 부정에 「ない, ぬ, ず」, 과거부정의 표현 「なんだ」, 정중제 「ござる, まらする」, 추측과 의지의 표현으로 조동사 「う, うずる」등이 나타나고 있다. 위의 조사에서 존경을 나타내는 「ござる」나 겸양을 나타내는 동사인 「致す」, 「參る」, 「ぞんずる」등은 모달리티와의 관련이 약한 것으로부터 용언에 포함시켰다.

『天草平家物語』에 나타나는 조건의 접속조사와 조동사 등의 술어부의 제 요소를 살펴보면, 접속조사별로는 표현형식의 출현이 자유로운 접속조사와 출현하기 어려운 접속조사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ほどに」와 「ども」는 推測·意志의 표현에 이르기까지 모두 잘 나타나는데 반하여, 「ても」와 「ながら」는 用言에 주로 접속하고 있음을 알

2) 龜井孝(1955:5)는 近代日本語의 諸相이 사회적으로 성립한 것은 개괄적으로 室町시대의 末期부터 江戸時代初期에 걸쳐서 성립하였으며, 近代日本語의 특징은 口語文体로의 확립으로 보았다.

수 있다. 또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어 근세어 에서 교체현상이 일어난 접속조사 「ほどに」와 「によって」, 「とも」와 「ても」는 『天草平家物語』에서는 표현형식이 차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ほどに」는 「によって」에 출현하지 않는 추측이나 의지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으며 「とも」는 「ても」와 비교하여 다양한 표현형식이 출현하고 있다.

<표1> 종속절 출현요소

出現要素 條件節	用言	助 動 詞							總計
		尊敬	断定	過去完了	希望	否定	鄭重	推測意志	
ホドニ	33	10	17	9	1	5	7	4	86
ニヨッテ	39	7	7	96		7	8		162
ドモ	79	12	37	181		44	36	13	402
トモ	27	13		7		8	7		62
テモ	22	2				1	1		26
ナガラ	27	2					2		31
表現型式		るる らるる	ぢゃ なれ である	た たれ	たい	ないぬ ず なんだ	ござる ござある まらする	う うずる	

2.2 『大藏虎明本狂言集』

『大藏虎明本狂言集』에서는 『天草平家物語』와 비교하여 존경표현으로 연용형에 접속하여 존경 표현에 사용되는 「やる, めし」가 나타나고 있다. 회想到 「けれ」와 「しか」, 단정 표현으로 『天草平家物語』에 나타나는 「ぢゃ」는 예외 없이 「じゃ」로 나타나고 있다. 정중 표현에 조동사 「候」, 부정 추측에 「まじい」가 「まい」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

『天草平家物語』에서는 확정표현에 「によって」가 우세를 보였으나 『虎明本狂言集』에서는 「ほどに」의 사용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ほどに」는 사용례의 수뿐만 아니라, 술어부에 출현하는 제 요소의 출현에 있어서 모달리티성이 낮은 과거부정에서 추측·의지의 표현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によって」는 사용빈도는 그다지 적지 않으나, 부정추측이나 추측·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조건의 가정표현을 나타내는 「とも」와 「ても」에 있어서도 술어부의 제 요소의 출현에 차이가 있다. 「とも」는 대 부분의 출현요소가 나타나는 데에 반하여 「ても」는 용언과 존경의 표현만이 나타나고 있다.

<표2> 종속절 출현요소

出現 要素 條件節	用言	助 動 詞								總計
		尊敬	否定 過去否定	過去 完了	希望	斷定	鄭重	否定推測 意志	推測 意志	
ホドニ	469	92	184	204	12	195	225	67	144	1592
ニヨッテ	60	22	55	43		20	29			229
ドモ	150	10	29	136		79	94	1	16	515
トモ	70	4	30	26		4	1		1	136
テモ	121	4					1			126
ナガラ	105									105
表現型式	體言 用言	るる らるる やる めし	ない ぬね ず なんだ	た たれ けれ しか	たい	じゃ なれ	ござる ござある まらする おじゃる 候ふ	まい まじい	う うずる	

2.3 『捷解新語』

『捷解新語』의 종속절 술어부에 나타나는 출현요소는 존경의 표현에 「る, らる」, 부정
에 「ない, ぬ, ん, ず」등이 나타나며 과거에 「た」, 완료의 표현에 「たり」, 희망에 「たい」,
鄭重의 표현에 「ござる, まらする, まする, おじゃる」, 부정의 추측·의지를 나타내는 표
현에 「まい」, 추측·의지의 표현에는 「う, よう」등이 나타나고 있다.

「ながら」는 체언에 접속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외의 표현형식에 있어서도 용언의 연
용형에 접속하는 방식이다. 이외는 대조적으로 「ほどに」, 「により」, 「けれども」, 「ども」
등에는 다양한 표현형식이 보인다.

<표3> 종속절 출현요소

出現 要素 條件節	文獻名	用言	助 動 詞								總計
			尊敬	否定 過去否定	過去 完了	希望	斷定	鄭重	否定推測 意志	推測 意志	
ホドニ	原刊本	48	25	21	47		39	26	5	31	242
	改修本	17	3	10	17		7	36	3	27	121
	重刊本	19	1	5	12		4	13	2	20	77
ニヨリ	原刊本										
	改修本	8	4	10	8		23			3	56
	重刊本	6	1	9	8			12	1	6	43
ドモ	原刊本	38	2	12	17			8		4	81
	改修本	11	2	8	1			25		2	49
	重刊本	7	1	7	17			13		2	47
ケレ ドモ	原刊本					2					2
	改修本	1	1			1		3		9	15
	重刊本	1	1					4		8	14

出現要素 條件節	文獻名	用言	助 動 詞								總計
			尊敬	否定 過去否定	過去 完了	希望	斷定	鄭重	否定推測 意志	推測 意志	
トモ	原刊本	11	1	2							14
	改修本	4	1	6				2		1	14
	重刊本	2	2	2				2			8
テモ	原刊本	24	4					2			30
	改修本	20	5	1				13			39
	重刊本	12	8	2				6			28
ナガラ	原刊本	6		1							7
	改修本	3									3
	重刊本	5									5
出現型式			る らる	ない ぬ ん ず	た たり	たい	お ゃ	ご ざ る ま ら す る ま す る お ち ゃ る	ま い	う よ う	

종속절의 출현요소를 조사해 본 결과, 접속조사별로는 「ながら」와 같이 조동사로 나타나 는 술어부의 제 요소의 출현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 접속조사가 있으며 「ほどに」와 같이 모 든 출현요소와 잘 결합할 수 있는 접속조사가 있는 등 접속조사별로는 술어부의 제 요소 출현이 어느 정도 특정지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접속조사에 따라서는 제요소의 출현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ても」는 『天草平家物語』, 『大藏虎明本 狂言集』에서는 출현요소가 용언의 형태나 존경표현이 대부분이나 『捷解新語』에 있어서는 정중을 나타내는 표현과 결합하여, 정중한 표현에 자주 쓰이는 접속조사로 되었다.

3. 모달리티성에 의한 접속조사 분류

본고의 조사대상인 술어부에 나타나는 조동사의 모달리티성에 대한 분석은 渡辺(1953, 1971)에 있어서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芳賀(1954), 服部(1957), 林(1960,1978), 南 (1974, 1993) 등도 조동사 분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술어부의 내부구조의 분석에 의한 형태적인 특징에 대한 조사를 행하였다. 渡辺는 조동사를 모달리티 정도에 따라 「第1類 조동사」, 「第2類 조동사」, 「第3類 조동사」로 구분하고 있다. 南는 접속조 사 등으로 이루어진 종속절의 내부구조를 조사하는 것을 통하여 내부구조를 구성하고 있 는 제 요소의 공존관계로부터 문 구성의 단계를 파악하려 하였다. 南는 구성요소의 출현 에 따라서 종속절을 「A. B. C」의 세 단계로 나누고, 출현하는 모달리티 정도에 따라 접 속조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南의 접속조사 분류>

A類：し，ながら，つつ，連用形 反復

B類：ので，たら，ても，と，なら，ば，て(並列・原因・理由)，ながら(逆接)

C類：が，から，けれども，し，て

南에서 「A」, 「B」, 「C」의 세 단계에 출현하는 모달리티 표현형식은 渡辺의 조동사 분류와 일치하며, 三尾의 「정령화 비율」에 의한 접속조사의 순서, 필자의 「경어의 출현율에 의한 접속조사의 분류」에 대한 조사 결과와도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부터 일반적인 문법현상으로 볼 수 있겠다.

野田는 종속절에는 완전한 모달리티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³⁾으로 보고 있는데, 본고에서도 종속절에는 渡辺가 준종조사로 표현하는 「う, よう, まい」와 같은 조동사, 「단정, 추량, 의심, 결의」등을 나타내는 모달리티표현이 출현하여 종속절에서 언어사용자의 정신 작용을 나타내며 종속절의 성립에 관계하고 있다.

<表4>와 같이 접속조사별로 종속절에 나타나는 모달리티성을 조사해 본 결과, 접속조사는 모달리티의 정도가 높은 모달리티요소가 자주 출현하는 접속조사와 모달리티의 정도가 약한 요소가 출현하는 접속조사로 나눌 수 있었다. 접속조사는 이와 같이 모달리티성이 특정지어져 있는 것으로부터 모달리티표현의 출현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접속조사별로는 모달리티의 정도에 응하여 출현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접속조사 교체현상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접속조사 본래의 기능인 전절과 후절의 접속 관계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4> 접속조사별 모달리티형식

接續 助詞別 表現型式	ホドニ	ニヨリ	ニヨッテ	ドモ	ケレ ドモ	トモ	テモ	ナガラ
意志	○	○		○	○	△		
否定意志	○			○				
推測	○	○		○	○			
鄭重	○	○	○	○	○	○	○	
斷定	○	○	○	○		○		
希望	○				○			
完了	○	○	○	○		○		
否定	○	○	○	○		○	○	
尊敬	○	○	○	○		○	○	
用言	○	○	○	○	○	○	○	○

3) 野田尚史, 「眞性モダリティをもたない文」, 『日本語のモダリティ』, くろしお出版, 1989, p.132.

4. 접속조사의 공존현상

접속조사의 공존에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화자의 주관적인 부분인 모달리티성의 차이로 인한 의미적 차이가 내재하여 있다고 할 수 있다.

4.1 「から」와 「ので」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조사 「から」와 「ので」는 그 동안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주관적인 표현(から)」과 「객관적인 표현(ので)」에 주로 사용되는 등 그 기능과 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から」는 순수하게 原因·理由를 나타내는 접속조사이며, 「ので」는 「から」에 비하여 原因, 理由를 나타내는 意味의 정도가 약한 표현으로서 「から」와 「ので」에 대한 의미와 용법을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⁴⁾

永野(1952)는 「から」와 「ので」의 사이에 의미, 용법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용법의 특성 분석에 의하여 규명하였다. “「から」와 「ので」와의 사이에 의미 용법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선행 연구의 기초 위에서, 兩語의 용법의 특성을 分析하는 것에 의하여 더욱 분명히 糾明하였다.

「から」가 話者の 主觀에 근거한 표현인 推量, 見解, 意志, 命令, 依頼, 質問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ので」는 主觀적인 이유를 나타내는 기능이 없으므로 「ので」로 置換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から」와 「ので」가 置換이 가능한 경우에도 「から」는 「だから」, 「ので」는 「それで」에 해당하여 「から」에 비해 「ので」가 보다 부드러운 느낌을 갖는 것으로부터 두 접속조사간의 차이를 구분하고 있다.

岩崎(1995)는 南 등의 견해를 수용하여 「から」를 「事態의 原因·理由」를 나타내는 B類와 「모달리티적 態度의 根據」를 나타내는 C類로 구분하였다. 「から」가 「ので」표현으로 치환되지 않는 것은 C類의 「から」에 해당한다고 하여 “「ので」가 객관적인 표현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から」가 이끄는 종속절에는 「발화·전달의 모달리티」에 가까운 모달리티 성분이 존재하여 모달리티의 정도가 보다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永野에서 「ので」에는 “主觀적인 이유를 나타내는 기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趙順文(1988) 등의 비판과 함께 永野說에 대한 검토⁵⁾가 요구되어 왔으며 「ので」가 객관적 표현에만 사용된다는 점에 대한 그 동안의 비판에 대하여 진일보한 분석을 내 놓았다.⁶⁾

4) 國立國語研究所, 『現代語の助詞・助動詞-用法と實例-』, 秀英出版, 1951.

5) 趙順文, 「「から」と「ので」-永野說を解釋する-」, 『日本語學』, 1988.

6) 「ノデとカラ」, 『日本語類義表現の文法(下)』, p.511.

- 27) [彼が行ったから彼女も行った]でしょう。(B類, 命題)
 28) [彼が行ったから]彼女も行ったでしょう。(C類, 모달리티)

문을 dictum(소재적)의 측면과 modus(언어주체의 태도)의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하고 있는 構文論上의 이론에 맞추어 생각할 때, 永野의 “「ら」에는 오로지 객관적 因果關係의 표현으로 話者の 주관이 排除되어 있다”는 정의는, 「ら」는 「ら」에 비하여 객관적 측면이 강하다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永野(1952) 자신도 「ら」는 “「ら」를 포함하기 때문에 「ら」보다는 주관성이 강하고 「ら」를 포함하고 있어 「ら」보다는 부드러운 표현이다.”고 설명하여, 「ら」를 「ら」와 「ら」의 中間的인 표현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主觀과 客觀에 있어서의 계층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즉, 「ら」를 중심으로 「ら」는 보다 主觀的인 表現을 나타내고 있으며, 「ら」는 보다 客觀的인 表現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5> 「ら」·「ら」의 諸說

	から	ので
三尾	순수한 原因·理由	から보다 意味의 정도가 약함
永野	主觀的表現	客觀的表現
南	C類	B類
岩崎	모달리티적 態度의 根據	
	事態의 原因、理由	
益岡	判斷레벨	現象레벨
모달리티性	+ (う、よう、まい)	± (う、よう、まい 不可)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 「ら」와 「ら」는 意味나 用法上의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조사에 있어서 용법과 기능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모달리티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부터 「ら」와 「ら」의 공존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보인다. 즉 현대 일본어에 있어서 原因·理由의 표현에 사용되는 접속조사 「ら」와 「ら」는, 위와 같이 모달리티의 차별화에 의한 문법적, 의미적 차이를 보이며 공존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2 「ら」와 「ら」

확정조건의 접속표현에 사용되던 접속조사 「ら」와 「ら」는 從來의 확정조건의 표현에 사용되었던 「ら」의 용법과 함께 일본의 중세어에 많이 사용되었다.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天草平家物語』(1593年)에서는 「ら」가 86例, 「ら」

가 162례가 출현, 확정의 조건표현에 「によって」의 사용이 많았음을 알 수 있으나, 『虎明本狂言集』(1642年)의 조사에서는 「ほどに」는 1592례가 출현하지만, 「によって」는 229례로 「ほどに」의 사용량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ほどに」와 「によって」는 사용량의 차이는 있지만, 다 같이 확정의 조건표현에 다용되었던 접속조사로서 공존하며 병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의 <표3> 과 <표4>를 참조하여 「ほどに」와 「によって」에 있어서의 모달리티성을 살펴보면, 「ほどに」는 종속절에 있어서 출현하는 모달리티성분 중 가장 모달리티의 정도가 높은 <추측>, <의지>의 표현이 『天草平家物語』에서 4례, 『虎明本狂言集』에서는 9례가 출현하고 있는데 반하여, 「によって」는 『天草平家物語』와 『虎明本狂言集』의 어느 쪽에도 1례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에서 「ほどに」, 「によって」와 같이 현대어의 확정표현에 사용되는 접속조사인 「から」와 「ので」의 의미, 용법상의 차이를 설명하며, 이와 같은 차이점의 원인으로 양 접속조사의 모달리티성의 차이를 지적한 바 있다. 「ほどに」와 「によって」에 있어서도 모달리티의 차별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부터 양 접속조사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면서 의미와 용법의 차이를 화자가 의식하여 어휘를 취사,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ほどに」와 「によって」가 공존하며 사용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즉, 같은 의미의 접속조사가 공존하기 위하여는 모달리티의 정도가 달라야 하며, 일본어 화자는 의미와 용법의 차이를 무의식의 상태에서 느끼고 구별을 하여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ほどに」를 모달리티성과 관련하여 보면, 하나의 문에서 여러 개의 종속절이 출현하는 일본어 근세어문의 특성으로부터 「ほどに」가 이끄는 종속절은 모달리티의 정도가 낮은 다른 접속조사가 이끄는 종속절의 일부가 되지 않으며 「ほどに」나 「ども」와 같은 모달리티성이 높은 접속조사에 의하여 중지되거나 주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주절에는 종조사나 명령 등의 표현이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모달리티성이 높은 절을 유도하는 접속조사라 하겠다.

- 29) なかなか悪しうござらうずるほどに, それがしまづまかり上って人々にも申し合わせ,
清盛の氣色をもうかがうて, 迎いに人を進じようず。
(平家 卷一 75, 11)
- 30) 橋の上の軍わ火の出るほどになってござる, かないさうにもござないほどに,
(平家 卷二 129, 5)
- 31) 時分もよう御ざる程に, ござれと云て, よぶでこい。
(狂言集 女狂言之類 171, 17)

<표6> 「ほどに」·「によって」

文獻名	出現 要素 條件節	用 言	助 動 詞							總計	
			尊敬	否定	過去 完了	希望	斷定	鄭重	否定推測 意志		推測 意志
平家	ホドニ	33	10(12)	5(5)	9(10)	1(1)	17(20)	7(8)		4(5)	86
	ニヨッテ	39	7(4)	7(4)	96(60)		7(4)	8(5)			162
狂言	ホドニ	469	92(6)	184(12)	204(13)	12(0.7)	195(12)	225(14)	67(4)	144(9)	1592
	ニヨッテ	60	22(10)	55(24)	43(19)		20(9)	29(13)			229

※ ()는 %를 나타냄.

4.3 「とも」와 「ても」

역접의 가정표현에 이용되었던 「とも」와 「ても」도 「ほどに」와 「によって」와 마찬가지로 『天草平家物語』와 『虎明本狂言集』에서 공존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고대어에서부터 가정표현에 사용되었던 「とも」는 새롭게 나타난 「ても」와 함께 사용되었다. 『天草平家物語』에는 「とも」가 62례로 26례에 불과한 「ても」와 비교하여 수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으나 『虎明本狂言集』의 조사결과는 「とも」136례, 「ても」126례로 양 접속조사가 거의 대등하게 사용되고 있다.

<표7>에서, 양 접속조사의 모달리티성을 비교하여 보면, 「とも」와 「ても」는 종속절에 있어서 추측이나 의지, 부정추측 등 모달리티의 정도가 높은 출현요소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ても」의 경우 소재적 측면이 강한 모달리티 성분인 용언이나 존경의 출현요소가 나타날 뿐으로 「ても」는 「とも」와 비교할 때, 「소재지향성 모달리티」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으며 모달리티의 정도에 있어서 차별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3) 思い出さるるにつけても, なをかなしゅう思われたと, きこえてござる.

(平家 卷一 82,19)

32) うたいを聞き召されずとも, 御對面ばかりあつて歸させられば,

(平家 卷二 95, 16)

34) なんとしてわがつらが, みたいと思ふても, みられぬ事じゃ

(女狂言之類, 179, 14)

<표7> 「とも」・「ても」

文獻名	出現 要素 條件節	用言	助 動 詞								總計
			尊敬	否定	過去 完了	希望	斷定	鄭重	否定推測 意志	推測 意志	
平家	トモ	27	13(21)	8(13)	7(11)			7(11)			62
	テモ	22	2(7)	1(3)				1(3)			26
狂言	トモ	70	4(3)	30(22)	26(19)		4(3)	1(0.7)			136
	テモ	121	4(3)					1(0.8)			126

※ ()는 %를 나타냄.

5. 접속조사의 비공존 현상

「ほどに」, 「ども」, 「とも」 등의 접속조사는 일본의 근대어에서 쇠퇴하고 이들 접속조사의 역할은 점차로 「により」, 「ても」, 「けれども」가 담당하게 되었다. 이 당시는 일본어사에 있어서 언어의 변화가 대단히 심하였던 시기⁷⁾로 일련의 접속조사의 변화현상도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의미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새로운 접속조사가 출현하여 접속조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비공존 현상에도 모달리티성이라는 문법적 규칙성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1 「ほどに」와 「により」

『天草平家物語』와 『虎明本狂言集』에서 조건의 확정표현에 널리 사용된 접속조사 「ほどに」는 『捷解新語』의 原刊本에서도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조사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ほどに」는 改修本과 重刊改修本에 있어서는 그 역할이 점차로 「により」로 대체되어 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같은 내용의 문이 일본어의 변화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捷解新語』의 改修에는 접속조사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당시 일본의 언어변화를 改修時에 반영한 결과로서 예문34), 35)와 같이 原刊本(1676)과 改修本(1748)에서 접속조사 「ほどに」로 사용되었던 표현이 예문36)의 重刊改修本(1781刊)에 있어서는 치환되어 「により」가 「ほどに」대신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原刊本에서 「ほどに」가 조건의 확정표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점으로부터 重刊改修本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예도 적지 않지만, <표8>과 같이 江

7) 此島正年, 『國語助詞の研究』, 櫻楓社, pp.122-154.

戶時代 中期 이 후에는「ほどに」의 사용빈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ほどに」를 대신 하여 「により」가 점차로 쓰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捷解新語』의 改修本부터는 「ほどに」와 「により」가 공존하여 병용되기보다는 「ほどに」가 점차로 쇠퇴하고 원인이유의 접속조사 역할이 「により」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ほどに」에서 「により」로의 치환현상과 관련지어, 두 접속조사의 모달리티성을 비교하여 보면, 「ほどに」는 『天草平家物語』, 『虎明本狂言集』에서와 마찬가지로 『捷解新語』의 原刊本에서 重刊改修本에 걸쳐 종속절에 있어서 모달리티성이 높은 요소인 의지, 추측의 표현요소와 함께, 정중, 단정, 부정의 표현 등 모든 모달리티 요소가 출현하고 있다.

『捷解新語』의 改修本에서부터 나타나는 「により」는 『天草平家物語』, 『虎明本狂言集』에 나타나는 「によって」와 달리, 의지나 추측을 나타내는 모달리티 요소가 출현하는 것으로부터 모달리티의 정도가 강한 접속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ほどに」와 「により」는 모달리티성에 있어서 같은 영역의 단계에 있으며, 이로 인한 언어적 충돌은 한 쪽의 접속조사가 쇠퇴를 하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 35) その様に好い日和を逢わしられた程に, (原 第六. 14ウ)
- 36) かやう好いひよりに御あいなされましにより, (改 第六. 21)
- 37) ケ様の好日和に御あわなされましたにより, (重 第六. 19)
- 38) 振舞の爲様も御座る程に, (原. 第八. 10)
- 39) ごきやうおおがござるけなほどに, (改. 第八, 14ウ)
- 40) 御響應が御座ると申まするにより, (重. 第八. 12)

<표8> 『捷解新語』「ほどに」·「により」

出現 要素 條件節	文獻名	用言	助 動 詞								總計
			尊敬	否定 過去否定	過去 完了	希望	斷定	鄭重	否定推測 意志	推測 意志	
ホドニ	原刊本	48	25(10)	21(9)	47(19)		39(16)	26(11)	5(2)	31(12)	242
	改修本	17	3(2)	10(8)	17(14)		7(5)	36(30)	3(2)	27(22)	121
	重刊本	19	1(1)	5(6)	12(16)		4(5)	13(17)	2(2)	20(26)	77
ニヨリ	原刊本										
	改修本	8	4(7)	10(18)	8(14)		23(41)			3(5)	56
	重刊本	6	1(2)	9(21)	8(19)			12(28)	1(2)	6(14)	43

※ ()는 %를 나타냄.

5.2 「とも」와 「ても」

역접의 가정조건에 쓰이는 「とも」와 「ても」는 두 접속조사가 공존하여 병용되고 있으나 改修時에 「とも」는 점차로 쇠퇴하여 주로 「ても」가 가정조건을 나타내게 되었다.

<表9>에서와 같이 「ても」는 「とも」와 병존하다가 近世에 이르러 점차로 그 수가 증가 江戸 후기에는 「とも」를 대신하여 가정조건에 주로 사용되게 되었다.⁸⁾

「ても」는 <표7>에서와 같이 『天草平家物語』와 『虎明本狂言集』에서는 용언, 존경의 조동사인 「るる, らるる」 등의 「소재적 모달리티」의 요소만이 출현하고 있으나 『捷解新語』에서는 사용례의 증가와 함께 부정이나 정중의 모달리티가 출현하도록 되어서 모달리티의 정도가 「とも」와 대등하게 변화하였다. 아래의 예문)은 原刊本에서는 「とも」가 사용되었으나 改修本과 重刊本에서는 「ても」로 치환된 예를 보여주고 있다.

- 41) 其方衆十日二十日逗留して戻るとも, (原. 第三. 24)
- 42) おのおのとうかはつかとうりうしてかえらしやれても, (改. 第三. 32)
- 43) 各十日二十日逗留して歸らしやれても, (重. 第三. 30ウ)
- 44) 何卒思い合せて少し不足なるとも, (原. 第四. 17)
- 45) なにとぞりやうけんさつしやれてすこしふそくなるとも, (改. 第四. 23ウ)
- 46) 何卒了簡さつしやれて少少品が落ましても, (重. 第四. 22)

<표9> 『捷解新語』 「とも」·「ても」

出現 要素 條件節	文獻名	用言	助 動 詞								總計
			尊敬	否定 過去否定	過去 完了	希望	斷定	鄭重	否定推測 意志	推測 意志	
トモ	原刊本	11	1(7)	2(14)							14
	改修本	4	1(7)	6(43)				2(14)		1(7)	14
	重刊本	2	2(25)	2(25)				2(25)			8
テモ	原刊本	24	4(13)					2(7)			30
	改修本	20	5(13)	1(3)				13(33)			39
	重刊本	12	8(29)	2(7)				6(21)			28

※ ()는 %를 나타냄.

8) 此島正年, 『國語助詞の研究』, 櫻楓社, 1966, p.148.

5.3 「ども」와 「けれども」

前件の事項이 後件の 결과에 대하여 구속받지 않거나 그 반대의 사실을 나타내어 역접의 확정조건 표현에 사용하는 접속조사 「ども」와 「けれども」는 『捷解新語』의 「原刊本」에서는 「ども」가 주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改修本」과 「重刊改修本」에서는 「ども」가 쇠퇴하고 당시 數를 늘려가고 있던 「けれども」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일본어사의 近世語에 있어서 「ども」는 方言을 제외하고 사라지게 되는데⁹⁾ 江戸時代 말기에는 역접의 확정용법을 「けれども」가 계승하게 된다. 확정조건에 사용되는 접속조사 「ども」는 『捷解新語』의 改修에 있어서 모달리티성이 동일한 그룹에 속하는 접속조사인 「けれども」, 「が」와 접속사 「但し」로 치환되어 나타나고 있다. <表10>은 「ども」가 「けれども」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46) 今日濟まさんと思わしられうずれども, (原. 第四. 27ウ)
- 47) こんにちすめぬとおもわしやるけれども, (改. 第四. 40)
- 48) 今日濟めぬと思わしやるけれども, (重. 第四. 34)
- 40) 書き立てにも御ざろうずれども, (原. 第五. 11)
- 41) ていたてにも御ざりませうけれども, (改. 第五. 16ウ)
- 42) 手板にも御ざりませうけれども, (重. 第五. 14)

<표10> 『捷解新語』 「ども」·「けれども」

出現 要素 條件節	文獻名	用言	助 動 詞								總計
			尊敬	否定 過去否定	過去 完了	希望	斷定	鄭重	否定推測 意志	推測 意志	
ドモ	原刊本	38	2(2)	12(15)	17(21)			8(10)		4(5)	81
	改修本	11	2(4)	8(16)	1(2)			25(51)		2(4)	49
	重刊本	7	1(2)	7(15)	17(36)			13(28)		2(4)	47
ケレドモ	原刊本					2()					2
	改修本	1(6)	1(6)			1(6)		3(2)		9(60)	15
	重刊本	1	1					4		8	14

※ ()는 %를 나타냄.

조건의 확정용법에 사용되는 접속조사를 중심으로 의미적으로 같은 접속조사 사이에

9) 橋本進吉(1969), 『助詞・助動詞の研究』, 岩波書店, p.208.

일어나는 공존하여 병용되는 현상과 한쪽이 쇠퇴하여 소멸해 가는 비공존의 현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시대적 변화와 함께, 접속조사에 있어서도 조건의 가정표현과 확정표현에 여러 접속조사가 나타나 사용되었으며 이들 접속조사 사이에는 공존하여 함께 사용되는 경우와 공존하지 못하고 소멸하여 새로운 접속조사로 교체되어져 새로운 접속조사로 대체되어 가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접속조사간의 공존현상과 비공존현상에는 접속조사간에 의미적 동질성과 함께 다음과 같은 문법적 범칙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 現代語의 「から」와 「ので」, 중세어인 「ほどに」와 「によって」, 「とも」와 「ても」는 종속절의 모달리티性的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문법적, 의미적 차이를 나타내면서 共存하는 것이다.

(2) 江戸中期 이후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により」, 「けれども」, 「ても」는 모달리티 정도가 각각 「ほどに」, 「ども」, 「とも」와 같기 때문에 「ほどに」, 「ども」, 「とも」에 대신하여 사용되었다. 즉 모달리티性的의 정도가 같은 그룹에 속하는 接續助詞사이에는 共存하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6. 결 어

고대에 있어서는 주로 접속조사가 생략되었던 것에 비하여, 鎌倉·室町時代に 이르러 접속조사의 사용이 비약적으로 많아지게 되었다. 접속조사는 係助詞나 格助詞 등으로부터 이차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사회의 다양화와 복잡화가 언어에 반영되어 문의 복잡화에 따른 절과 절의 관계를 명확히 표시하고자 하는 의식의 고양으로부터 사용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접속조사의 사용에는 문법적인 규칙이 배경에 존재하고 있다. 접속조사의 정비와 발달은 근대일본어가 갖는 문법적 특징으로, 접속조사를 모달리티성과의 상관성에 의한 유형적인 대립을 통하여 접속조사간의 성격 비교를 할 수 있다.

「ホドニ」와 「ニヨッテ」, 「ニヨリ」, 「ドモ」와 「ケレドモ」, 「トモ」와 「テモ」등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조건의 접속조사 사이에 보이는 변화현상에는 의미나 용법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접속조사의 공존현상과 사용법은 현대어와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접속조사간의 교체라는 실증적인 방법을 통하여 모달리티와 접속조사의 변화의 관계를 살펴보면, 같은 조건을 표현하는 접속조사에 있어서도 화자의 주체적인 판단에 의하여 표현형식은 선택되어 사용될 수 있다. 현대어의 「ノデ」와 「カラ」에서와 같이 접속조사끼리는 모든 경우에 같은 의미나 판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의미적으로 공통된 접속조사는 형식에 있어서는 발화자의 미묘한 판단의 차이나 감정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어사에서 국어사적 변천으로만 취급되어온 접속조사의 변화현상은 모달리티성에 의한 문법적인 규칙성이 존재하고 있다.

접속조사를 사용하는 화자는 표현하려는 소재에 따라서 이들 접속조사의 차이를 인식하고 판단하며 소재내용에 맞추어 접속조사를 취사,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모달리티가 언어주체의 판단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모달리티성의 차이는 화자의 표현 내용과 대응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반대로 접속조사 사이에 모달리티성이 동일하여 의미나 용법의 차이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화자의 기호나 사회적인 분위기 등에 따라서 어느 한쪽의 접속조사만을 집중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다른 접속조사는 소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일본어사에 있어서 근대에 이르러 급속히 세력의 확장을 보였던, 접속조사는 같은 확정 및 가정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접속조사별로 의미와 용법에 미세하면서도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시대에 따른 접속조사의 변화에 있어서 명백한 규칙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의미와 용법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접속조사끼리는 공존을 하지 못하고 한쪽이 소멸되어 가며 의미와 용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접속조사는 공존하여 각기 다른 부분의 조건표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參考文獻】

- 趙順文 (1988) 「「から」と「ので」-永野説を解釋する-」, 『日本語學』7-7. pp.64-65
- 岩崎卓 (1995) 「ノテとカラ」, 『日本語類義表現の文法 (下)』, くろしお出版. p.511
- 大久保忠利 (1982) 『日本文法陳述論』, 明治書院. pp.257-370
- 龜井孝 (1955) 「近代日本語諸相の成立」, 『國語學』22. p.5
- 北條淳子 (1989) 「複文文型」, 『談話の研究と教育Ⅱ』, 國立國語研究所. p.12-14
- 國立國語研究所(1951) 『現代語の助詞・助動詞-用法と實例-』, 秀英出版. p.175
- 此島正年 (1966) 『國語助詞の研究』, 櫻楓社. pp.122-154
- 小林賢次 (1996) 『日本語條件表現史の研究』, ひつじ書房. p.243
- 近藤泰弘 (1988) 「中古語のモダリティの助動詞における階層關係」, 『昭和63年度 國語學會春季大會發表要旨』. p.67
- 佐治圭三 (1991) 『日本語の文法の研究』, ひつじ書房. pp.16-22
- 澤田治美 (1993) 「視点と主觀性-日英語助動詞の分析-」, ひつじ書房. pp.193-195
- 高山善行 (1977) 「從屬節におけるムード形式の實態について」, 『日本語學』6-12. p.46
- 寺村秀夫 (1979) 「ムードの形式と否定」, 『英語と日本語と -林榮一教授還曆記念論文集-』, くろしお出版. p.213
- 永野賢 (1952) 「「から」と「ので」はどうちがうか」, 『日本言の語學』. pp.472-485

- 野田尙史 (1989) 「眞性モダリティをもたない文」, 『日本語のモダリティ』, くろしお出版. pp.132-133. pp.138-145
- 橋本進吉 (1934) 『國語法要説』, 明治書院. p.208
- 益岡隆志 (1987) 「モダリティの構造と意味」, 『日本語學』6-7. p.31
- 南不二男 (1974) 『現代日本語の構造』, 大修館書店. pp.128-129
- _____ (1993) 『現代日本語文法の輪郭』, 大修館書店. pp.116-119. pp.241-250
- 安田章 (1996) 『國語史の中世』, 三省堂. pp.369-374
- 山岡政紀 (1955) 「從屬節のモダリティ」, 『複文の研究(下)』, くろしお出版. pp.310-311
- 湯澤幸吉郎 (1981) 『室町時代言語の研究』, 風間書房. pp.148-226. pp.291-316
- 渡辺實 (1971) 『國語構文論』, 塙書房. pp.58-69. p.147

【資料編】

- 『天草版平家物語 本文編』, 江口正弘, 明治書院.
- 『天草版平家物語 索引編』, 江口正弘, 明治書院.
- 『大藏虎明本 狂言集の研究 本文編 上』, 池田廣司・北原保雄, 表現社.
- 『大藏虎明本 狂言集の研究 本文編 中』, 池田廣司・北原保雄, 表現社.
- 『大藏虎明本 狂言集の研究 本文編 下』, 池田廣司・北原保雄, 表現社.
- 『大藏虎明本 狂言集總索引』, 北原保雄・村上照子, 武藏野書院.
- 『三本對照捷解新語』, 京都大學文學部國語學國文學研究室編.
- 『改修捷解新語』, 京都大學文學部國語學國文學研究室編.

要 旨

接續助詞は時代とともに發達と衰退をしながら, 置換現象が行われている。同じ意味を持つ接續助詞別に共存現象と置換現象は意味的な共通点とともに文法的な規則性が見られている。このような現象は「から」と「ので」のように現代日本語にも現れる。現代日本語で条件の確定用法として広く使われている「から」と「ので」は共存関係にある。しかし「から」と「ので」の意味・用法には差が見られる。本稿では、接續助詞別に行われる置換現象とモダリティ性を關聯づけて、日本語の変化にモダリティ性が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ているか?などを考察してみた。

日本の中世語から近代語へ変化した時期は言語の移り変わりがとても激しかった時期である。社會的發達と意識の成長は言語の表現にも多様化をみせるようになった。接續助詞においても条件を表す假定表現と確定表現に多様な接續助詞が現れ, 使われるようになった。同じ意味を持つ接續助詞の間には共存し, ともに使われる接續助詞と, 共存できず, 一つが消滅して新しい接續助詞に入れ替わっていく接續助詞がある。このような一連の接續助詞の置き換えには意味的同質性とともなう文法的な法則性が存在している。即ち, 接續助詞別に從屬節に現れるモダリティ性が特定されていることから, 接續助詞はモダリティの度合いに応じて出現しているのである。

このような接續助詞の置換現象は「から」と「ので」のように現代日本語を調べることによっても同じ結果を得られることから日本語共通の文法的傾向であるといえよう。

キーワード：接續助詞・共存・非共存・交替現象・モダリティ・モダリティ性

투 고 : 2004. 11. 30
1차 심사 : 2004. 12. 11
2차 심사 : 2005. 1. 4

住 所 : (300-716)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일어일문학과
電 話 : 042-280-2256
e-mail : djllphn@dju.ac.kr